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자본 투자유치 현황과 문제점

이 규 방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소장

지난 3월 21일 송도신도시 외자유치에 대한 기사가 대서특필되었다. 그 내용은 미국의 G&W사에 송도신도시의 일부인 120만평을 매각하고 G&W사의 주도로 2013년까지 117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해서 국제 비즈니스 센터를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이었다. 또한 송도신도시를 투자 자유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계획도 있으며, 송도신도시 주변의 대규모 프로젝트들의 진행에 있어서도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의지도 표명되었다.

이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IMF 구제금융시기에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경기회복을 위한 자구책으로서 활성화된 외국자본 투자 유치 정책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발전을 위한 자구책으로 더욱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I. 對韓 외국자본 투자 유치 현황

2001년 對韓 외국인 투자 현황(신고 기준)을 보면, 11,870백만 달러 규모로서 총 3,341건에 이른다. 이는 규모나 건수에 있어서 2000년보다 0.2% 감소한 것이다. 이는 세계적 경기 침체와 예상치 못했던 미국 테러사태로 인한 급격한 경제활동 위축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1년 중 주요 외국인 투자는 전략적 제휴, 기투자기업 증액 투자, M&A 및 기업구조 조정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외국인투자가 한국의 산업경쟁력 고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적 제휴는 전자자동차 분야에서 활발히 전개되었고, 기투자 기업의 증액투자는 전

<연도별 외국인 투자 현황(신고기준)>

(단위: 백만불, %)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금 액 (증가율)	1,317 (26.1)	1,947 (47.8)	3,203 (64.5)	6,971 (117.6)	8,852 (27.0)	15,541 (75.6)	15,690 (1.0)	11,870 (-0.2)
건 수 (증가율)	646 (41.0)	873 (35.1)	967 (10.8)	1,055 (9.1)	1,400 (32.7)	2,102 (50.1)	4,140 (97.0)	3,341 (-0.2)

자료 : 산업자원부, “2001년 외국인투자실적 및 2002년 전망”(보도자료), 2002.1.11.

자, 유통, 금융 부분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한편 M&A는 전자상거래, 화학,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업 구조 조정을 위한 외자유치는 각 개별기업들이 활발한 구조 조정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활성화되었다.

지역별로는 미주, EU, 아주지역 순으로 對韓 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주지역은 2000년도에는 미국에 이어 제2위의 對韓 투자지역이었으나, 2001년도에는 일본 등 아시아 경기 침체로 EU보다

투자가 부진하였다. 따라서 최대 투자국가는 작년에 이어 미국이었으며, 그 뒤로 캐나다, 네덜란드가 뒤따랐다.

한편 산업별 투자비중은 서비스업이 69.2%, 제조업이 30.7%로 나타났다. IT분야는 전년에 비해 투자비중이 감소했는데, 이는 전세계적 경기 침체에 따라 전기전자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진한 것에 기인한 것이었다. 또한 산업지원 서비스 분야는 금융, 통신 분야의 투자 증가로 인하여 투자비중이 증가하였다.

<지역별 외국인투자 동향>

(단위: 백만불, %)

구분	1999		2000		200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증가율
미주지역 (미국)	4,192 (3,739)	27.0 (24.1)	6,519 (2,922)	41.5 (18.6)	6,318 (3,890)	53.2 (32.8)	Δ3.1 (33.1)
EU	6,261	40.3	4,392	28.0	2,906	24.5	Δ33.8
아주지역 (일본)	4,774 (1,750)	30.7 (11.3)	4,721 (2,448)	30.1 (15.6)	2,343 (772)	19.7 (6.5)	Δ50.4 (Δ68.5)
계	15,542	100.0	15,697	100.0	11,870	100.0	Δ24.4

자료 : 산업자원부, “2001년 외국인투자실적 및 2002년 전망”(보도자료), 2002.1.11.

<업종별 외국인투자 동향>

(단위: 백만불, %)

구 분	2000		200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차산업	3	-	9	0.1
제조업(전기·전자)	7,129 (2,409)	45.4 (15.4)	3,643 (1,593)	30.7 (13.4)
서비스업(산업지원서비스)	8,565 (5,679)	54.6 (36.2)	8,218 (4,647)	69.2 (39.2)
합 계	15,697	100.0	11,870	100.0

자료: 산업자원부, “2001년 외국인투자실적 및 2002년 전망”(보도자료), 2002.1.11.

투자유형별로는 구주 매각에 의한 기업 구조 조정이 활발히 전개됨에 따라, 구주 취득에 의한 M&A 투자의 비중이 작년보다 확대되었다. 반면 신규법인을 설립하거나 증자에 참여하는 등 신주취득방식에 의한 투자 비중은 전년도보다 하락하였다

규모별로는 1천만불 이상 투자 비중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5백만불 이하의 소규모 투자건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SOC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SOC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경우 직접 지분 참여를 비롯해서 차입, 외화채권 발행 등 그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유형별 외국인투자 동향>

(단위: 백만불, %)

구분	1999		2000		200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신 주	12,571	80.9	14,074	89.7	9,353	78.8
구 주	2,333	15.0	1,277	8.1	1,901	16.0
장기차관	638	4.1	346	2.2	616	5.2
합 계	15,542	100.0	15,697	100.0	11,870	100.0

자료 : 산업자원부, “2001년 외국인투자실적 및 2002년 전망”(보도자료), 2002.1.11.

<SOC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현황: 2001년 10월 현재>

사업명	현 황	외국인 투융자 관련		
		투자자	형태	투융자 규모
인천국제공항철도	시공 중	ECA 등	차입	15,888억원
인천제2연육교	협상준비중	AMEC	미정	미정
대구-부산 고속도로	시공중	DKB	차입	1,300억원
대전천변고속화도로	1단계협상종료	Egis Singapore Piling	외화채권 발행	1,385억원
광주제2순환도로3구간1공구	협상종료	Fuji Bank or Daiwa 등	차입	1,000억원
강남순환고속도로	협상중	Daiwa SB Markets	차입	1,732억원
		-	외화채권 발행	974억원
북항대교	협상중	Vinci	출자	250억원
마창대교	협상중	Vouygues	출자	250억원
거가대교	협상중	Vinci	출자	1,122억원
		CKI		1,200억원
		AIF		360억원
		Boscalis		204억원
		Coface	차입	943억원
		-		2,829억원
부산주경기장육외주차장	착공	Tesco	차입	600억원
송도·만수하수처리시설	협상종료	Vivendi	출자	282.76억원
검단하수처리시설	제3자제안요청 공고중	Vivendi	출자	34.76억원
		Marubeni		17.38억원
영도하수처리시설	착공준비중	ING Barings	차입	544억원
서울외곽순환도로인산퇴계원	착공중	Sanwa 은행	차입	1,300억원
용유-무의 관광단지	협상중	CWKA외	출자	12,000억원
		-	차입	50,900억원
부산신항만	시공중	PSA	출자	2,000억원
		CSX		15 ~ 20% (출자지분)
부산김해경전철	협상중	Vouygues	출자지분	25%
		Systra		5%
수정산터널	시공중	맥컬리뱅크	매각	
전라북도환경기초시설	제3자제안요청 공고준비중	SNC-LAVALIN Int'l Inc.	출자	
부산광역시음식물쓰레기 광역처리시설	협상중	-	설비공급자 차관	

II. 지자체의 주요 외국인투자 유치 사례

외국인 투자유치는 해당 지자체의 경제 상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 직접적인 효과는 고용 증대, 지역 생산 및 수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로 대표되고, 간접적 효과는 입주공단 주변의 상가 매출 증가,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회계 처리의 개선 효과도 있다.

이러한 기대 효과를 목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성과 또한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경상남도와 경기도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1. 경상남도

경상남도는 98년 이후 8개 사로부터 5억 8,300만 달러를 유치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 태양 유전으로부터 3억 3,100만 달러, 영국 BAT로부터 1억 달러, 스웨덴 스카니아로부터 5,600만 달러 등이다. 이 결과 연간 3,121명의 고용이 창출되었으며 4,394억 원의 수출 증대 효과가 유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경상남도가 경남도정의 제1목표를 외국기업 유치로 두고, 투자적지로서의 이미지 구축, 투자유인 및 창출, 사후관리적

서비스를 기본 전략으로 하여 활발히 활동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경상남도는 최적의 투자지역 이미지 구축을 위해 전국 최초로 민간전문가를 영입하였고 투자유치조례를 제정하였다. 1998년 8월에 투자유치과를 신설하여 삼성과 대우에서 파견한 기업인과 민간전문가를 영입하였으며, 이들을 과팀장으로 임명하여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였다. 그리고 1999년 1월에는 투자유치조례를 제정하고 One-Stop 서비스체제를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공장부지 임대 및 임대료 감면, 고용·교육 훈련·시설 보조금 지원, 15년간의 취득세·등록세 면제, 공장건축 등 인허가 처리 대행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예산을 확보하여 투자자의 신뢰감 확보를 기하였다¹⁾. 그리고 2001년 2월에는 중소기업의 부품소재 공급 외국기업의 임대 유치를 위해 ‘진사 외국기업 공단’을 지정, 운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투자최적지로서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 TV, 신문 등을 통한 언론매체 광고를 이용하고 있으며, 투자매거진(Invest in Gyeongnam Quarterly)도 영·일문으로 발행하여 전세계 투자가를 대상으로 배포하고 있다. 특히 경상남도의 경우 실제로 태양유전 유치시 사업계획서 접수부터 공장기공식까지 49일만에 모든 행정처리를 해 줌으로써 완벽한 One-Stop 서비스의 대표적 사례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1) 경상남도의 외국인 투자 유치 예산은 '99년 150억원, 2000년 158억원, 2001년 70억원에 이릅니다.

<경상남도 국내 투자설명회 개최 성과>

(단위:건/억원,명)

구 분		계	1999년	2000년	2001년
투 자 의향체결	건 수	64	6	26	32
	금 액	19,740	3,512	11,430	4,798
참 석 인 원		3,010	800	1,060	1,150

투자 유인 및 창출을 위해서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내 투자설명회는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그 성과는 다음 표와 같다.

그리고 해외 투자유치 활동은 유럽,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주요 공업도시를 대상으로 하여 소규모 실리 위주의 투자 세일즈팀 2~3명을 파견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 결과 Nalco, 써머텍(미국),

EEW(독일)와 직접 상담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였다. 그밖에도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와 합동 세일즈를 시도하였다. 경상남도과 삼성테크윈, 노무라종합연구소 3자간 협약을 통해 일본부품·소재 기업을 조사('00. 9월~11월)하여 3,400개 업체의 투자의향을 조사한 결과로 52개의 투자 유치 목표 기업을 발굴하였다. 현재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경상남도가 유치한 외국기업 현황>

구 분	투자국	투자금액	고용인원	생산제품	추진상황	년 간 주 요 기 대 효 과
한국경남 태양유전	일 본	231백만불	1,400명	적층세라믹 콘 텐 서	'00. 5. 23 공장준공가동	GRDP 2,760억원 수 출 2,208억원
써 머 텍 코 리 아	미 국	6백만불	57명	항 공 기 엔진 부품	'99. 11. 8 회사창립가동	GRDP 124억원 수 출 77억원
날 코 코 리 아	미 국	14백만불	104명	수 처 리 화학 제품	'99. 12. 17 공장기공식	GRDP 616억원 수 출 43억원
한 국 J. S. T	일 본	32백만불	300명	압착단자, 커 넥 터	'01. 3. 13 공장준공가동	GRDP 1,126억원 수 출 507억원
E E W 성화산업	독 일	27백만불	220명	용접강관	'00. 12. 29 공장기공식	GRDP 554억원 수 출 230억원
한국경남 태양유전 (추가투자)	일 본	100백만불	400명	적층세라믹 콘 텐 서	'01. 9월 공장기공예정	GRDP 1,458억원 수 출 1,166억원

경상남도에서는 유치한 기업이 그 나라에 대해 깊은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철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기업 유치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업유치가 결정되어 공장이 준공된 후에도, 종전과 변함없는 사후관리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한 조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도내에 기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지원 제도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리고 상·하반기 각 1회에 걸쳐 외국인투자기업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운영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답변 및 조치를 취해 주고 있다. 보다 실질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위해 직접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전담팀도 운용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기본적으로 외국투자기업과의 정례적 접촉을 통해 믿음과 신뢰를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되, 행사성 방문을 삼가하고 방문일자와 시간은 기업 측에 일임하여 부담없이 애로사항을 건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 가능율과 접촉빈도는 비례되게 하여 도내에 진출해 있는 171개 외국기업을 투자유망 순으로 등급별로 분류하여 접촉 빈도를 정해 놓고 있다. 방문 접촉 후에는 공장가동 현황, 해외투자 정보, 본사 사업계획 등을 기재하고, 필요시 투자유망 등급을 재조정하는 등 D/B화 되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관리 대장을 정비한다.

직접 유치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투자협상에서 공장준공까지는 유치협상팀을 통해, 그리고 공장준공에서 가동상황까지는

행정지원팀을 통해 일관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초창기 공장설립 가동으로 인한 불안심리 등을 해소해 주기 위해 제품수송방법, 협력업체와 유대관계 등 전방위 협조체제를 구축해 놓고 있다.

또한 1998년 12월에 실시한 도내 외국기업 설문조사 결과 본사의 투자 결정권자는 한국의 국내 관리자를 통해 투자계획과 위치, 규모 등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외국기업의 한국인 국내책임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국인 국내책임자는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못하나, 본사의 투자방향과 계획은 어느 정도 간파하고 있으며 국내투자환경과 기업여건 등을 본사에 전파하는 최일선 창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때, 외국인 투자 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때문에 야기되는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와 지방재정부담 등으로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경상남도의 경우 외국기업 Incentive 예산확보 과정에서 도민공청회와 전문가 간담회, 도의회 설득에 많은 애로를 겪었다. 그러나 1998년에 경상남도가 공공근로사업 등 단기적 실업 대책을 위해 지출한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자유치조례에 의한 외국기업 지원금으로 지출했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고용 효과를 실제로 보여줌으로써 도민과 의회를 설득하였다.

2. 경기도

최근 가장 활발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의 하나가 경기도이다. 실제로 2001년에는 26억 6,600만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 경제규모가 106조원으로 서울의 96조원을 앞섰고, 투자지출 증가율도 24%로 가장 높은 수준이 되었으며, 실업률은 3.2%, 경제성장률은 21~23%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도정목표를 외국인투자유치로 삼고 외자유치전문가를 활용하여 해외시장을 돌아다니며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벌인 한편 세제지원, 보조금 혜택 등 갖가지 유인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외자유치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방세 감면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였고,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각종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1998년 8월에는 외자유치 전담기구로 경기도내에 외국인투자센터를 개소하였고, 1998년 10월에는 7개팀, 33명으로 구성된 투자진흥·교류협력과를 신설하였으며, 2000년 2월에는 경기도 뉴욕투자사무소를 현지에 개소하였다. 외자유치 전문가(외국인 2명 등 10명)를 고용하여 One-Stop 서비스 지원도 강화하였으며, 해외투자유치 활동도 매우 활발하여 98년부터 현재까지 도자체 해외 투자설명회가 7회, 통합사절단을 통한 해외 투자설명회를 11회 개최하였다. 이러한 투자 유치 활동에 있어 지역산업 발전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우선 개발하여 이들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적 수요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투자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외국인 전용 임대 단지를 조성하였다. 이 임대 단지는 외국인 기업의 첨단업종의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 자격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조세가 감면되는 고도기술 수반 업종이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다²⁾. 인센티브는 1백만불이상 투자시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있으며, 국세는 7년간 100%, 그후 3년간 50%를 감면해 준다. 지방세는 15년동안 전액 면제해 주며, 관세, 특소세, 부가세는 투자 신고 후 3년 이내에 도입되는 자본재에 대해서는 100% 면제해 준다.

그 결과 외국인 전용 임대 단지의 임대 실적은 90.5%에 이르며, 계약업체가 21개사, 이 단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금액(신고기준)이 130백만 달러에 이르며, 이로 인한 고용계획인원이 2,243명이 된다. 즉 지방비 314억원을 투자해서 외자 130백만 불을 유치하였으며, 이로 인해 신규고용 창출, 신규 공장건축에 따른 지역내 건축경기 활성화, 원·부자재 공급관련 수요 창출, 환경친화적 고도기술수반사업 유치로 인한 산업구조 개편 등의 부대효과도 얻었다. 그

2) 경기도의 외국인 전용 임대 단지는 평택시에 조성된 것으로써 조성원가가 314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월임대료는 m²당 8.25센트(조성원가의 1%, 한화로 99원)임.

리고 공단진입로 인 지방도 340호선을 확장함으로써 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되기도 하였다.

경기도의 경우 이러한 외국 투자 유치 활동에 있어 경기도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나 공장 건축 총량규제 등과 같은 수도권 규제라는 제약요인이 있다. 이외에도 국내외 투자기업간 합작투자, 기업 기본공장 증설 허용, 수도권지역 임대용지 매입비 국비지원 현실화, 지방의 인프라 확충 등도 향후 중앙정부의 협조하에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다.

III. 장애 요인

1.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시 문제점

첫째,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 이러한 정확한 목표의식없이 가능한 모든 투자를 우선 유치부터 해 놓고 보겠다는 생각 때문에 MOU 등의 외형적 실적 쌓기에만 급급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MOU는 쌍방간의 투자를 위한 일종의 약속일 뿐 실질적인 투자를 위한 협약이나 투자 이행 의무를 부과하는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둘째는 투자 유치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성 평가가 미비되어 있다는 점이다. 프로젝트를 세일즈

하는 입장에서 판매할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효과적인 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투자 설명회를 하는 경우에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수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해당 프로젝트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투자자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항목들에 대한 언급 없는 투자 설명회 개최로 오히려 대외 신인도를 하락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유관 계획이나 중앙정부와의 협의없이 자체 계획만을 나열해서 투자자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까지 있다.

셋째, 해외 투자자들과의 접촉을 시도할 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접촉해야 할 투자자군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원하는 형태의 투자에 특화되어 있는 투자자군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들의 needs에 따른 단계별 접근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투자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프로젝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라, 또는 투자자의 투자 방침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투자 요구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요구 조건에 맞지 않는 투자자들을 상담하는 데 있어 소홀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투자자들의 요구 사항을 고려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요구 사항만을 제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일단 만나야 할 투자자군이 적절히 선택된 후에도 투자 상담을 위한 사전 준비가 미비한 경우가 많다. 최근 지자체의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을 종합해 보면, 지자체내 자유무역(투자)지역 지정, 세제 혜택, 부지 저가 공급, 외국인의 주거 생활 환경 개선 등으로 축약된다.

특히 근래에 나타나는 특징은 해외투자 설명회 및 투자자 초청설명회 개최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직접 상담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지만 충분한 준비없는 해외 투자설명회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나아가서 국가의 위신도 떨어뜨리고 있다. 목표 투자자들이 속한 시장에 대한 파악과 Presentation 대상이 되는 투자자들의 주관심사에 대한 파악 없이 Presentation에서 프로젝트 개요 수준의 내용을 나열함으로써 비전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언어 소통의 문제가 있다. 최근 급신장한 인도의 외국인 투자 유치의 중요한 여건 중의 하나가 영어의 상용화이다. 물론 프로젝트의 사업성이나 투자 여건이 더 중요하겠지만, 정보의 정확한 전달이라는 점에서 언어 소통의 문제를 등한시할 수는 없다. 통역을 쓰는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한 오히려 잘못된 의사 전달을 유발할 수도 있고, 담당자가 소신을 가지고 직접 전달하는 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지자체 내부 조직상의 문제점

첫째, 의사 결정 시스템에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 결정자의 교체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치 방침도 자

주 바뀌게 됨으로써 일관성을 잃게 된다. 이는 곧 대외 신인도와 직결되므로 외국인 투자 유치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의사결정자도 투자 유치에 대한 기존의 기본 방침은 유지하되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는 보완책을 제시하는 수준의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의사 결정자가 투자 유치 방침을 정할 때 단기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방침을 우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문 인력의 부족 문제를 들 수 있다. 투자 유치 담당자의 경우 업무상 장기간의 인력 관리와 실질적인 투자 상담으로부터 얻게 되는 경험으로부터 전문성을 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잦은 인사 이동으로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것이다.

한편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기관을 신설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부 인력을 다수 영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에 대해서도 단기 고용 계약에 단기적인 실적 위주의 평가를 강요함으로써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전문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또 한가지 방법으로써 아웃소싱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이들의 업무를 감독·평가할 수 있는 만큼 내부 인력의 전문성은 필요하다. 이러한 관리 능력의 부족이 아웃소싱한 외부 인력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국내에는

이러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업무를 일괄적으로 맡길만한 대행업체(agency)도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셋째, 협상 능력의 부족이다. 투자 유치가 결정된 후에도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 그 첫 단계가 협상인데, 우리 나라의 공적 기관들은 협상이라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바와 더불어 상대방의 운신의 폭을 가늠하고 있어야 합리적인 수준에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다.

특히 외국 투자자와의 협상에 있어서는 국가간 법률적·제도적 차이점에 대한 인지 부족이 큰 장애요인이 된다. 예를 들어 계약 문구 작성시에도 외국 투자자들의 경우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 계약상으로 미리 그 대비책과 책임 분담에 대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추후 논의식”의 항목을 선호하는 편이다. 추후 논의식은 일종의 책임 회피수단으로 오인될 수도 있고, 실제로 추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협상 전문인력의 부족도 문제이다.

3. 개선 방안

첫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특히 낙후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취약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들의 수익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 조치가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지원에 있어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 조직이라면 100% 신뢰하는 국내 실정과 달리 해외 투자자들에 있어서 지방정부는 많은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지방정부가 파산 사례도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하나의 위험 요인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신인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조가 필수불가결하다. 최근 일부 해외 투자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다중적 보증 가운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프로젝트의 경우 중앙정부의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안고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프로젝트 고유의 위험요인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따르는 위험 요인들, 예를 들어 사업계획서 접수부터 실제 사업을 시작하기까지의 기간동안에 필요한 행정 절차 및 절차 완료를 위한 소요기간 등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운영기간동안의 위험 요인들, 즉 정부지원의 이행, 노사안정 대책 등도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투자자 풀을 구성해 외국 투자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국내 투자 유치 희망기업을 발굴하여 연계하는 투자매치마케팅(i-Match Marketing) 체제를 구축하는 것

이다. 이미 지난해 8월 산업자원부에서도 이 투자 매치마켓팅 전략을 추진하여 효과적인 외국인투자를 유도하겠다고 공표하였다. 이를 위해 산자부 및 KISC는 정부의 R&D 자금 지원기업 등 우량기업을 엄선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투자유치 희망기업 풀을 구축하고 미국·일본·EU 등의 주요국 컨설팅사들로 하여금 현지의 전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국기업 투자에 관심을 가진 유망 잠재투자자를 발굴토록 하여 세계적인 컨설팅사와 정부가 공동으로 투자 매치마켓을 개설·운영하고자 한다.

이는 외국 투자자와 국내 투자유치 희망기업을 효율적으로 연결시켜 매치 메이킹(Match Making)의 성사가능성을 제고하게 된다. 그리고 외자 유치를 희망하나 유

치활동 경험이 적고 관련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고, 외국 투자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한국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섯째, 대규모 투자 설명회보다는 해당 지자체의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여 이러한 특성의 개발을 위한 필요(Needs)를 정한 다음 그에 적합한 투자자를 모색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투자 상담으로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여섯째, 유치된 투자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유치된 투자자들을 잘 관리함으로써 추가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투자를 유발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 